

한국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에 관한 연구 - 한국적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장 수 연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은 조윤경(2002)이 청소년의 자아의식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적 양육행동은 임정하(2003)가 한국적 양육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제주도 소재 3개 중·고등학교의 중2, 3학년과 고1, 2학년 청소년 35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이원 분산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의 양육행동 특성 중 가르침 요인이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양육행동 특성 중 관심 요인이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가르침 요인이었다. 셋째,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모의 양육행동 특성이 부의 양육행동 특성에 비해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한국적 양육행동, 나의식, 우리의식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E-mail : suyoun39@korea.ac.kr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청소년기는 성장의 시기로 아동의 미성숙에서 성인의 성숙으로 옮겨가는 시기이며, 동시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발달단계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구체적 조작적 사고단계에서 형식적 조작적 사고단계로의 변화와 조망, 수용능력의 인지적 발달 변화를 통해 다른 어느 시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자신의 능력, 가치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평가인 자아개념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 및 인지적 발달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기에 자아의식이 증가함으로써 발달한다(Elkind, 1967; Harter, 1990).

자아개념(self-concept)은 사람 속에 존재하는 실재(實在)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적인 신념의 집합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신체적 특징, 개인적 능력, 특성, 가치관, 역할, 흥미, 사회적 지위 등을 포함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의미하며(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그 사회의 준거에 의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아울러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에 의해 평가되는 자신에 대한 지각을 통해 형성된다.

청소년기에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사회적 맥락은 부모, 또래 관계 등 청소년 주변의 중요한 타인이다. 청소년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는 청소년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나

행동의 수행 수준에 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평가를 위한 준거의 틀로서 작용한다. 특히, 중요한 타인이 보이는 사회적 지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정보의 출처로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기태도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Calsyn & Kenny, 1977; Mead, 1934; Sullivan, 1953).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 애정적, 자율적이라고 지각될 경우 자아정체감 확립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권순명, 1993; 이현, 1999),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신나나, 2000).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이 자아정체감 확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이현, 1999),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과잉기대, 과잉간섭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방치 요인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서정숙,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권순명, 1993; 서정숙, 2002; 신나나, 2000; 이현, 1999)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서구의 백인 중류층 가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을 설명하였다는 데 상당한 제한점이 있으며, 나라·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데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문화특수성을 고려한 한국적 양육행동특성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적 양육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에서 언급되는 자아개념 속에는 서구 문화적 기본 전제가 깔려있으며, 자아개념 이론과 용어, 척도들은 개인주의적인 서구인의 특성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잣대로 우리 한국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연구의 누적으로 인하여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필연적인 괴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한규석, 1999)는 제한점이 있다. 이 제한점은 한국인의 자아개념을 이러한 측정도구들로 측정할 시 한국적인 문화적 특성을 간과하게 되므로 현실적인 자아개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자아’와 ‘관계’에 관한 개념을 근거로 하여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청소년들의 자아의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아개념에 대한 문화적 인식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서구의 자아개념과 한국의 자아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구의 자아는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구조물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아를 대상으로 한 자기관찰 또는 내성을 통해 이러한 성격의 자아를 발견하고, 발달시키고, 통합된 형태로 조직화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며, 자신의 자아를 준거로 하여 선택행동을 결정하고 이러한 자아에 따라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자아 실현이 된다(최상진, 1999; Baumeister, 1998). 서구인들은 성장과정에서 ‘나’ 즉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일을 부단히 요구받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 일을 수행해 나간다. 예컨대,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자녀에게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묻혀 있는 자아의 분석을 통해 ‘나다움’을 구성할 것을

부단히 요구한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어떤 선택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자신의 자아와 연결하고 동시에 자신의 자아를 준거로 하여 선택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구인들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관여가 강하다(Giddens, 1991)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자아개념은 서구의 개념과 다르다. 서구인은 독립적인 ‘나’를 강조하는 것에 반해 한국인은 관계의 측면을 더 강조한다. 한국문화에서 ‘나’를 강조할 때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며,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비슷한 뉘앙스를 갖는다. 또한, 한국의 자녀교육방식에서는 서구에서 요구하는 개인 중심적, 자기 개성적, 자기 독립적 개인보다는 개인-사회적, 조화적, 사회 공동선적(社會共同善的), 상호 협동적 인간 또는 인격을 더욱 중요시하고 이상화한다. 즉 서구에 비해 독특성, 차별성을 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Choi, 1991). 한국인의 ‘자아’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로서 서구인의 자아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맞는 한국인의 자아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서구의 self개념을 도입하여 ‘자아’라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자아’는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능 체계이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서구의 ‘자아’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지 않은 고정불변의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자신이 상호 작용 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적응시켜야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주의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문화에 따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아의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아’보다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어떤 뜻도 함축할 수 있는 ‘나’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이다(최상진,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self)에 대한 용어를 한국적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나’로 명명하고 자아개념을 ‘나의식’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서구의 사회심리학에서는 그동안 관계를 내집단이라는 용어로 연구해왔다. 그러나 내집단은 문화를 초월한 일반사회심리학적 개념이다. 일상의 말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내재한 의미가 달라진다. 서구에서는 내집단이라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내집단이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가 적당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 관계 집단을 구성하고 확인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개인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하나됨 형성을 지향한 ‘관계성 개인’이기 때문이다(최상진, 1999).

한국문화 속에서 사는 한국인은 고유한 인간관계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의식과 우리의식’은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된 참조체계 중의 하나이다. 나의식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독자적인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관계성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식은 ‘나와 너’가 모여 친밀한 교류 과정을 통해 일체감을 느끼며 개개인과는 다른 독특한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한 개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를 함께 보아야만 한다.

비교문화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Gergen(1973)은 전통적인 심리학에서 이루어져 온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관한 연구가 본질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글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 인간의 문화적, 역사적 구속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한규석, 1991, 재인용).

Hofstede(1980)는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대한 분류체계를 내놓았고, 이러한 관점에서 Triandis(1989)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개념은 비교문화 연구의 기본적인 틀로서 1980년대 이후부터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해 왔다. 또한, Markus와 Kitayama(1991)는 문화적 자아관으로서 독립적 자아관(Independent Self)과 상호의존적 자아관(Interdependent Self)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자아관은 개인의 인지, 정서, 동기의 제반 심리과정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촉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사회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초기엔 한규석(1991, 1996)에 의해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과 현황 및 적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고, 독립적 자아관과 상호의존적 자아관이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검증한 연구(서동효, 2001; 이누미야,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가 있었으며, 조궁호(1993, 1995, 1997b, 2001)에 의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화유형에 따른 한국인의 인지, 정서, 동기 등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있었다.

또 하나의 연구동향은 토착 심리학적 연구로서,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독특하게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행동 특성들로부터 심리학적

개념들을 끌어내고 이를 심리학적 이론으로 발전시키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상진은 토속적 현상이라 여겨지는 정, 우리성, 심정, 눈치, 한, 체면, 핑계 등에 대하여 사회적 표상론적 연구방법을 통해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정심리학(최상진, 1993, 1996)과 당사자 심리학(최상진, 1997)의 논리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서구인의 자아관과 비교하여 한국인의 마음과 '나'관에 관한 이론적 정립을 모색하였다(최상진, 1992, 1999).

가장 최근에 시작되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동향은 유학사상 연구로서, 동양 고전의 심리학적 독서를 통해 기존의 서양심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여 한국인 또는 동양인의 심리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과 틀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연구(조궁호, 1997a; 한규석, 1999; 한덕웅, 2003)들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선진유학사상을 통해 동·서양의 이상적 인간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나의식 내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관련성, 그리고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의 자아개념과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자아'와 '관계'의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본 후, 한국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인적 입장에서의 자아의식과 환경적 입장에서의 우리의식으로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나 의식과 우리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부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제주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적 차이가 있는 두 지역에서 유의표집 하였다. 청소년의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이며, 학년별로는 중 2, 3학년과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개인의 자아는 청년초기부터 청년후기까지 계속적으로 발달하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르면 발달 비율에서 감소가 일어난다(Redmore & Loevinger, 1979)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3개교 14학급의 남녀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학생 43.2%, 여학생 56.8% 지역별로는 서울 78.2%, 제주 21.8% 학년별로는 중2 집단 25.1%, 중3 집단 24.9%, 고1 집단 25.1%, 고2 집단 25.1%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54)

변인	구분	대상자의 수	백분율(%)
성별	남	153	43.2
	여	201	56.8
지역	서울	277	78.2
	제주	77	21.8
학년	중2	89	25.1
	중3	88	24.9
	고1	89	25.1
	고2	88	24.9

측정도구

나의식과 우리의식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한국문화에 맞는 나의식과 우리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운경(2002)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은 각 44문항으로 나의식의 하위요인은 고유성(7문항), 성취지향성(7문항), 자기수용성(11문항), 관계성(10문항), 자기우월성(9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의식의 하위요인은 상호친밀성(8문항), 우리에게 대한 회의(9문항), 상대배려성(7문항), 일체감(10문항), 관계지향성(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적 양육행동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적 양육행동 측정도구 중 <청소년용>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적인 양육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부와 모의 양육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정하(2003)가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각 30문항으로 하위요인은 불신(부-11문항, 모-12문항), 존중(부-8문항, 모-5문항), 가르침(부-7문항, 모-9문항), 관심(부-4문항, 모-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절차

예비조사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1개 고등학교 1학년과 성동구에 위치한 사설학원에 다니는 남녀 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측정도구에서 중학생들이 질문지의 문장 이해에 어려움을 표명하여, 몇몇 문장의 어려운 낱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질문지로 2004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각 1개교와 제주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1개교에서 중2, 3과 고1, 2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담임선생님들께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전달하고 담임선생님들께서 편한 시간에 실시하여 우편으로 회수 받는 방식으로 하였다. 배부한 질문지 총 431부 중 편부모이거나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354부(82.1%)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원분산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분석방법은 중다회귀분석의 여러 방법 중 영향력 있는 변인을 찾아내고자 하거나 변인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하는 탐색적 연구에 적절하므로(양병화, 1998) 이 방법을 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나의식

나의식의 하위요인을 성별과 학년별로 살펴보면,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학생 집단에서 중2집단과 중3집단은 관계성($M=3.46$, $SD=.59$; $M=3.27$, $SD=.56$)을 평균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고유성, 성취지향성, 자기수용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의 부정적인 측면인 자기우월성은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1집단은 성취지향성($M=3.72$, $SD=.59$)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다음으로 관계성, 자기수용성, 고유성, 자기우월성 순으로 나타났다. 고2집단은 고유성($M=3.62$, $SD=.69$)을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관계성, 성취지향성, 자기수용성, 자

기우월성 순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 중2집단은 고유성($M=3.61$, $SD=.63$)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관계성, 성취지향성, 자기수용성, 자기우월성 순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집단도 고유성($M=3.56$, $SD=.81$)을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성취지향성, 관계성, 자기수용성, 자기우월성 순으로 나타났다. 고1집단은 평균적으로 관계성($M=3.81$, $SD=.56$)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유성, 성취지향성, 자기수용성, 자기우월성 순으로 나타났다. 고2집단도 평균적으로 관계성($M=3.80$, $SD=.62$)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유성, 성취지향성, 자기수용성, 자기우월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표 2. 청소년의 나의식 및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N=354$)

변인	학년 성별	중 2		중 3		고 1		고 2	
		M	SD	M	SD	M	SD	M	SD
고유성	남	3.41	.66	3.26	.62	3.62	.71	3.62	.69
	여	3.61	.63	3.56	.81	3.61	.63	3.60	.69
성취지향성	남	3.37	.61	3.20	.75	3.72	.59	3.48	.49
	여	3.51	.69	3.52	.63	3.61	.67	3.54	.59
자기수용성	남	3.23	.77	3.16	.68	3.66	.61	3.36	.62
	여	3.17	.74	3.15	.75	3.26	.66	3.21	.68
관계성	남	3.46	.59	3.27	.56	3.71	.59	3.53	.60
	여	3.57	.56	3.45	.48	3.81	.56	3.80	.62
자기우월성	남	2.94	.87	2.92	.74	2.79	.79	2.99	.79
	여	2.95	.70	2.89	.81	3.11	.75	3.11	.78
나의식	남	3.28	.53	3.16	.48	3.50	.42	3.40	.44
	여	3.36	.46	3.31	.47	3.48	.46	3.45	.46

과, 표 4에서 보듯이 나외식에서 학년($F=3.92$, $P<.01$)에 따른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3 집단과 고1집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계성 요인에서만 성별($F=5.61$, $P<.01$)과 학년($F=6.71$, $P<.01$)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2집단과 고1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3집단과 고1, 고2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우리의식

우리의식의 하위요인을 성별과 학년별로 살

펴보면,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학생 집단에서 중2집단은 평균적으로 상호친밀성($M=3.66$, $SD=.63$)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다음으로 관계지향성, 일체감, 상대배려성, 우리에게 대한 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3집단도 상호친밀성($M=3.56$, $SD=.76$)을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다음으로 관계지향성, 상대배려성, 일체감, 우리에게 대한 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1집단도 상호친밀성($M=4.16$, $SD=.72$)을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다음으로 관계지향성, 일체감, 상대배려성, 우리에게 대한 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2집단도 상호친밀성($M=4.03$, $SD=.63$)을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다음으로 관계지향성, 일체감, 상대배려성, 우리에게 대한 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 중2집단은 상호친밀

표 3. 청소년의 우리의식 및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N=354$)

변인	학년 성별	중 2		중 3		고 1		고 2	
		M	SD	M	SD	M	SD	M	SD
관계지향성	남	3.48	.64	3.43	.75	3.99	.74	3.76	.67
	여	3.67	.68	3.76	.61	3.99	.64	3.93	.67
상호친밀성	남	3.66	.63	3.56	.76	4.16	.72	4.03	.63
	여	3.84	.65	3.75	.65	4.04	.63	4.08	.71
상대배려성	남	3.28	.68	3.23	.63	3.66	.58	3.56	.47
	여	3.47	.45	3.59	.59	3.59	.51	3.70	.47
일체감	남	3.38	.60	3.14	.77	3.88	.56	3.60	.74
	여	3.59	.60	3.55	.56	3.83	.65	3.81	.66
우리에게 대한 회의	남	2.74	.73	2.60	.77	2.50	.48	2.81	.75
	여	2.64	.65	2.70	.68	2.49	.74	2.62	.73
우리의식	남	3.31	.47	3.20	.49	3.64	.45	3.55	.39
	여	3.44	.37	3.47	.34	3.59	.39	3.63	.42

성(M=3.84, SD=.65)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리에 대한 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3집단은 다음으로 관계지향성, 일체감, 상대배려성, 우 관계지향성(M=3.76, SD=.61)이 평균적으로 가

표 4.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및 하위요인별 이원분산분석 (N=354)

종속변인	분산원	자유도	제곱합	평균 제곱	F	종속변인	분산원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나의식	성별(A)	1	.31	.31	1.42	우리 의식	성별(A)	1	.86	.86	5.06*
	학년(B)	3	2.59	.86	3.92**		학년(B)	3	4.68	1.56	9.16**
	A×B	3	.25	.08	.37		A×B	3	.93	.31	1.81
	오차	346	76.20	.22			오차	346	58.94	.17	
	합계	354	4089.03				합계	354	4330.12		
고유성	성별(A)	1	1.02	1.02	2.24	관계 지향성	성별(A)	1	2.19	2.19	4.87*
	학년(B)	3	2.25	.75	1.65		학년(B)	3	8.00	2.65	5.91**
	A×B	3	1.54	.51	1.13		A×B	3	.84	.28	.62
	오차	346	157.33	.46			오차	346	155.23	.45	
	합계	354	4578.94				합계	354	5144.42		
성취 지향성	성별(A)	1	.78	.78	1.90	상호 친밀성	성별(A)	1	.36	.36	.81
	학년(B)	3	3.11	1.04	2.54		학년(B)	3	10.86	3.62	8.11**
	A×B	3	1.64	.55	1.34		A×B	3	.96	.32	.72
	오차	346	141.21	.41			오차	346	154.40	.45	
	합계	354	4436.51				합계	354	5488.17		
자기 수용성	성별(A)	1	1.74	1.74	3.62	상대 배려성	성별(A)	1	1.67	1.67	5.54*
	학년(B)	3	3.20	1.07	2.23		학년(B)	3	4.28	1.43	4.76**
	A×B	3	1.33	.44	.92		A×B	3	1.44	.48	1.60
	오차	346	165.88	.48			오차	346	103.74	.30	
	합계	354	3892.86				합계	354	4447.80		
관계성	성별(A)	1	1.82	1.82	5.61*	일체감	성별(A)	1	2.86	2.86	6.64*
	학년(B)	3	6.53	2.18	6.71**		학년(B)	3	10.44	3.48	8.10**
	A×B	3	.36	.12	.37		A×B	3	1.69	.56	1.31
	오차	346	112.17	.32			오차	346	148.72	.43	
	합계	354	4662.49				합계	354	4723.37		
자기우월성	성별(A)	1	.77	.77	1.27	우리에 대한 회의	성별(A)	1	.17	.17	.34
	학년(B)	3	.98	.33	.54		학년(B)	3	1.63	.54	1.06
	A×B	3	1.19	.40	.66		A×B	3	1.02	.34	.66
	오차	346	2.08.36	.60			오차	346	177.72	.51	
	합계	354	3376.20				합계	354	2648.90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호친밀성, 상대배려성, 일체감, 우리에게 대한 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1집단과 고2집단에서는 상호친밀성($M=4.04$, $SD=.63$; $M=4.08$, $SD=.71$)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관계지향성, 일체감, 상대배려성, 우리에게 대한 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우리의식에서는 성별($F=5.06$, $P<.05$)과 학년($F=9.16$, $P<.01$)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2집단은 고1, 고2집단과 중3집단도 고1, 고2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관계지향성에서는 성별($F=4.87$, $P<.05$)과 학년($F=5.91$, $P<.01$)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호친밀성에서는 학년($F=8.11$, $P<.01$)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상대배려성에서도 성별($F=5.54$, $P<..05$)과 학년($F=4.76$, $P<.01$)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 일체감에서는 성별($F=6.64$, $P<.05$)과 학년($F=8.10$, $P<.01$)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의 사후 검증을 해 본 결과, 관계지향성에서 중2집단은 고1집단과 중3집단도 고1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상호친밀성에서 중2집단은 고1, 고2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중3집단도 고1, 고2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상대배려성에서는 중2집단과 고1집단 간에, 그리고 중3집단과 고1, 고2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의 양육행동으로 설명한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나의식 및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부의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가르침 요인만이 청소년의 나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나의식의 하위요인 중 고유성에서는 부의 존중(2.4%)과 불신(1.9%)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취지향성과 자기수용성 요인에서는 가르침(5.0%, 3.8%)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관계성 요인은 부의 가르침(8.5%)과 존중(1.0%)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우월성 요인에서는 불신(2.6%)과 존중(1.7%)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우리의식 및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의식에서는 가르침(6.3%)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의식의 각 하위요인 중 관계지향성과 상대배려성 요인에서는 가르침(6.0%, 3.3%)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상호친밀성과 일체감 요인에서는 가르침(7.3%, 5.1%)과 존중(1.8%, 1.5%)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회의 요인에서는 불신(6.5%)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부의 양육행동으로 설명한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N=354)

종속변인	독립 변인	B	β	R ²	ΔR^2	F	종속변인	독립 변인	B	β	R ²	ΔR^2	F
나의식	가르침	.16	.25	.060	.060	22.61**	우리의식	가르침	.15	.25	.063	.063	23.47**
고유성	존중	.13	.16	.024	.024	8.69**	관계 지향성	가르침	.23	.25	.060	.060	22.38**
	존중	.23	.27	.043	.019	7.07**		가르침	.23	.25	.060	.060	22.38**
	불신	.18	.18					존중					
성취 지향성	가르침	.20	.22	.050	.050	18.59**	상호 친밀성	가르침	.25	.27	.073	.073	27.67**
	가르침	.18	.20					가르침	.18	.20	.091	.018	6.88**
	존중	.13	.15					존중					
자기 수용성	가르침	.18	.20	.038	.038	13.95**	상대 배려성	가르침	.14	.18	.033	.033	12.20**
	가르침	.23	.29	.085	.085	32.61**		가르침	.21	.23	.051	.051	18.93**
관계성	가르침	.19	.24	.095	.010	3.88*	일체감	가르침	.15	.16	.066	.015	5.73*
	존중	.09	.11					존중	.12	.14			
자기 우월성	불신	.16	.16	.026	.026	9.38**	우리에 대한 회의	불신	.23	.26	.065	.065	24.50**
	불신	.26	.27					불신	.23	.26	.065	.065	24.50**
	존중	.17	.17	.043	.017	6.31*		존중					

* p < .05 ** p < .01

모의 양육행동으로 설명한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나의식 및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나의식에서는 모의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인 관심(18.6%), 가르침(3.0%), 불신(1.0%), 존중(0.9%)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나의식의 각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는, 고유성 요인에서 모의 양육행동 중 관심(6.9%)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성취지향성 요인에서는 존중

(14.5%), 가르침(3.2%), 관심(1.7%)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 요인에서는 관심(13.1%), 존중(2.7%), 가르침(1.0%)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성 요인은 모의 양육행동 중 가르침(18.1%)과 관심(4.3%)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기우월성 요인은 관심(2.0%)과 불신(1.3%)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우리의식 및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의식에서는 모의 양육행동 중 관심(10.5%), 가르침(2.5%), 불신(2.3%)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8. 전의 영역 중 평균으로 일정한 양을 행동에 나타내지 않는 우리식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N=354)

종속변인	독립변인	독립변인	β	R^2	B	ΔR^2	F	β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ΔR^2	R^2	ΔR^2	F
나의식	관심도의 양	행동	.186	.56	.186		80.60**	.48	관심	.18	.23	.105	.105	.62	1.14**
우리식의 관심도의 양	행동		.217	.41	.217		13.63**	.39	관심	.12	.13	.130	.130	.025	10.28**
* p < .05 ** p < .01															
나의식	가르침		.01	.15	.21				우리 의식	가르침	.13	.19			
	관심		.17	.27						관심	.16	.28			
	가르침		.11	.13						가르침	.14	.20	.154	.023	9.70**
	존중		.12	.18	.235	.010	4.40*			불신	.11	.17			
	불신		.08	.11											
	가르침		.12	.16	.226	.009	3.98*								
고유성	관심		.23	.26	.069	.069	26.17**		관계 지향성	가르침	.38	.36	.127	.127	51.24**
	존중		.35	.38	.145	.145	59.72**			가르침	.28	.26			
	가르침		.22	.22	.177	.032	13.54**			관심	.15	.17	.146	.019	7.91**
	존중		.23	.25						가르침	.33	.31	.095	.095	36.98**
	가르침		.18	.18	.194	.017	7.58**			가르침	.24	.22	.112	.017	6.78*
	관심		.15	.18						관심	.14	.16			
성취 지향성	존중		.15	.16					상호 친밀성	가르침	.24	.23			
	가르침		.18	.18						관심	.18	.20	.122	.010	3.89*
	관심		.15	.18						불신	.11	.11			
	관심		.33	.36	.131	.131	53.09**			관심	.21	.28	.079	.079	30.38**
	관심		.20	.22											
	존중		.21	.21	.158	.027	11.05**			관심	.16	.21	.090	.010	3.98*
자기 수용성	관심		.17	.19					상대 배려성	가르침	.11	.12			
	존중		.16	.16	.167	.010	4.06*								
	가르침		.14	.13											
	가르침		.39	.43	.181	.181	77.68**			관심	.30	.33	.110	.110	43.47**
	가르침		.26	.29						관심	.21	.23			
	관심		.19	.25	.224	.043	19.60**			가르침	.19	.18	.131	.021	8.61**
관계성	관심		.14	.14	.020	.020	7.27**		우리에 대한 회의	가르침	-.20	-.18	.032	.032	11.69**
	관심		.19	.19						가르침	-.16	-.15	.047	.015	5.41*
	불신		.15	.12	.033	.013	4.60*			불신	.14	.13			
	가르침		.39	.43	.181	.181	77.68**								
	가르침		.26	.29											
	관심		.19	.25	.224	.043	19.60**								
자기 우월성	관심		.14	.14	.020	.020	7.27**		우리에 대한 회의	가르침	-.20	-.18	.032	.032	11.69**
	관심		.19	.19						가르침	-.16	-.15	.047	.015	5.41*
	불신		.15	.12	.033	.013	4.60*			불신	.14	.13			
	가르침		.39	.43	.181	.181	77.68**								
	가르침		.26	.29											
	관심		.19	.25	.224	.043	19.60**								

* p < .05 ** p < .01

또한 우리의식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관계지향성 요인에서는 가르침(12.7%)과 관심(1.9%) 요인이, 상호친밀성 요인에서는 가르침(9.5%), 관심(1.7%), 불신(1.0%) 요인이, 상대배려성 요인에서는 관심(7.9%), 가르침(1.0%) 요인이, 일체감 요인은 관심(11.0%)과 가르침(2.1%) 요인이 그리고 우리에 대한 회의 요인에서는 가르침(3.2%)과 불신(1.5%)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나의식(22.7%)과 우리의식(14.9%) 모두에서 모의 양육행동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라는 특정 발달단계에서 한국사회라는 문화적 맥락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을 청소년들이 지각한 양육행동의 측면에서 자신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적 맥락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자아개념 측정도구로 측정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의 자아발달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의도를 바탕으로 먼저, 한국적 문화특수성이 반영된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

의식을 조사하여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의식과 우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고, 어떤 하위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의 목적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을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354명(남: 153명, 여: 20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나의식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학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나의식의 각 하위요인에서는 관계성 요인에서만 성별과 학년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우리의식의 평균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의식의 각 하위요인 중 관계지향성, 상대배려성, 일체감 요인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평균 차이를 나타냈고, 상호친밀성에서는 학년에 따른 평균 차이만을 나타내었다.

나의식의 관계성 요인과 우리의식의 관계지향성, 상대배려성, 일체감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나의식의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성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서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의식의 하위요인 중 우리에 대한 회의를 제외한 요인들에서도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Redmore와 Loevinger(1979)의 종단연구에서 나타나는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소년들보다 소녀들의 자아발달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결과(Cohn, 1991)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개념 발달이 높게 나타났다는 홍성화(2000)의 연구결과 등과 유사한 경향이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발달을 나타냈다는 박기춘(1998)과 현상운(200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 발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윤명숙(1989)과 김영일(2000)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처럼 성별간의 차이 연구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따르므로 추후 연구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중학생 집단보다 고등학생 집단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박아청(1996)의 자아정체감 발달에서의 학년 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중학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다가 고등학교에서 감소하고, 대학에서 다시 증가한다고 보고한 여윤정(2000)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학년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단순히 연령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만 보기 어려우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관계 지향적인 사회맥락 내에서 자신을 억제할 수 있고 겸양의 미덕을 갖추어 남과 조화를 이루며 대인관계에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사회를 조화롭게 하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보는(이수원, 1996; 조공호, 1999) 사회적 요구에 기인도 한 요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집단이 신체적인 급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적 의식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박아청, 1996)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결과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중3 집단이 중2 집단에 비해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고2 집단이 고1 집단에 비해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입시에 대한 심리적 위축, 특히 자아개념의 부정화 현상을 보인다고 한 여윤정(2000)의 보고와 일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상급학교로의 진학문제라는 부가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라 사료되나,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반화하기엔 문제가 따르므로 지속적인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를 보면, 여학생이 관계적 측면의 요인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 기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족들로부터 남학생은 독립적이고, 가정문제보다는 사회문제를 지향하도록 양육되는 반면 여학생은 남성적인 특성의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 받게 되고, 가정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되며,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도록 양육되는 역할기대의 차이에서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문화적 특성의 측면에서 논의해 보면, 개별성, 고유성을 중시하는 나 의식보다는 관계성, 사회성을 중시하는 우리의식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성별과 학년간의 차이도 우리의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나 의식과 우리의식 모두에서 긍정적인 측

면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집단주의가 범문화적으로 공유하는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야 하며(최상진, 1993a), 서구의 캐나다인은 공통적인 우리인 반면 동양권인 한국인은 단일체적 우리로서 우리의식의 특성이 다르다(최상진, 최수향, 1990)고 보고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동양권이라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인의 우리는 가족성-인간관계 중심적 우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일본인의 우리는 집단, 조직성-활동 중심적 우리를 나타내어 우리의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화에 따른 우리의식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최상진, 1993b)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속에는 서구에서와 같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아개념보다는 유교적 가족주의나 집단주의에 입각한 집단 속에서의 자아개념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과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부의 양육행동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가르침 요인이었으며, 부정적 측면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신이었다.

부의 양육행동 중 가르침 요인은 서구 양육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으로 자녀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질서나 공공의식을 깨닫도록 이르고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는 인격교육과 관련된 요인이다(임정하, 2003).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한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발달은 자기 자신

과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된 참조체계이므로, 인격교육과 관련된 부의 가르침 요인이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자녀교육방식에서 개인 중심적, 개성적, 독립적인 개인적 자기보다는 사회적, 조화적, 사회 공동선적, 상호 협동적 인간관을 이상화하므로, 나의식보다 우리의식에서 부의 가르침 요인이 약간 더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라 보이며, 나의식에도 관계성 요인이라는 관계지향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는 적절한 권위와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현실적 가능성과 역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며, 자녀를 사랑하지만 잘못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부의 양육행동 특성은 전통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부모 역할이었던 ‘엄부(嚴父)’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범(模範)’으로 올바르게 행동하여 자식에게 보임으로써 가르친다는 전통 가정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한국 사회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여 가치관의 혼란과 와해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Steinberg, 1982), 현대 가정의 양육행동에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공유된 책임을 갖고 있는 부는 인격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효율적인 전달방식이나 실천방식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의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양육행동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관심이었으며, 다음이 가르침이었다. 또한 나의식과 우리의식발달의 부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

치는 부의 양육행동 중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불신 요인이었던 반면, 나외의 부정적 측면인 자기우월성 요인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모의 양육행동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관심 요인이었고, 우리의식 발달에서 부정적 측면인 우리에 대한 회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양육행동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가르침 요인이었다. 이는 모가 전통 가정뿐 아니라 현대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부와 보내는 시간보다 모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상황에서 모의 간섭과 충고를 애정 어린 가르침으로 지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모의 관심은 자녀의 하루 일과에 대해 살피고 자녀와 관련된 일을 잘 챙기며 자녀에게 마음을 쓰고 정성껏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이 애정적 측면의 관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모의 가르침 요인은 부의 가르침 요인과 마찬가지로 인격교육과 관련된 요인이다. 모의 양육행동 특성은 자녀의 품성을 수용하고 자녀의 생활을 애정적으로 정성껏 돌보는 자애로운 어머니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전통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모의 역할이던 ‘자모(慈母)’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전통 가정에서 자녀는 모에게 중요한 힘의 원천이었으며, 자존감의 근원이었고,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는 동일체감 속에서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었다. 이러한 모의 심리가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자녀의 생활에 애정적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나외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모의 양육행동 특성이 애정적이고 지원적일수록 자녀의 나외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중시되었던 ‘엄부자모(嚴父慈母)’의 가정교육에서 나타나는 부의 엄격한 가르침과 모의 자애로운 관심이 현대의 가정교육에서도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부와 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특성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와 모의 적극적인 훈육, 가르침, 관심 그리고 존중이 청소년기 자녀의 나외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현대 청소년에게 나외의식이나 자율성, 개인적 유능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강조해왔던 우리의식이나 의무와 책임의 공유, 남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를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인격교육을 등한시하게 되어 ‘가르침’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지만, 한국의 부모자녀윤리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의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한국적 양육행동 특성의 강점으로 서구의 양육행동과는 차별화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임정하, 2003). 그러므로 부와 모가 공유된 양육의 책임 하에 인격교육을 위한 가정교육에 힘쓰며, 애정적이고, 지원적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자녀의 나외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의 나외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모의 양육행동이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모가 가정교육의 주양육자로서 기본적인 보살핌에 있어서 부와 자녀보다 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으

며,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가족 체계에서의 자녀 양육의 비중이 모에게 편중되어 있어, 부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에 비해 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비례적으로 많으므로 양육행동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측면의 요인들이 순기능적인 요인들에 의해 상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지각을 토대로 살펴본 선행연구(신나나, 2000; 이숙, 우희정, 김미란, 2000; 정영숙 외, 1999; Erel & Buman, 1995)에서 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나 부모의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유의하게 관련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모의 양육행동이 가정 내에서 주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애정적인 관심을 갖고 보살피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및 공공의식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교육담당자로서의 역할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의 양육행동은 유교문화권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평가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에게 이성적 판단에 의한 엄격한 가르침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와 모가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기능상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느 한쪽 부모에 편중되지 않게 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나의식의 관계성 요인과 우리의식의 관계지향성, 상대배려성, 일체감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으며, 나의식의 관계성 요인과 우리의식의 관계지향성, 상호친밀성, 상대배려성, 일체감 요인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나의식과 우리의식 모두에서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대체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중학교 집단보다는 고등학

교 집단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나 의식보다는 우리의식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한국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의 양육행동 중 이성적 판단에 의한 부의 가르침이 청소년기 자녀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나 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것은 관심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전통적 가정교육 방식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부와 모의 역할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모의 양육행동이 부의 양육행동에 비해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가족체계에서의 자녀 양육의 비중이 현재에도 여전히 모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 만큼 모의 애정 어린 관심이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한국적 자아개념이라 할 수 있는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발달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서구의 자아발달 연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들을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았다는 점과 이론적으로 정립된 한국인의 자아의식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각 하위요인별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들과의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결과들로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지속적인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결과가 각 학년마다의 차이가 아닌 중학교 집단과 고등학교 집단 간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점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령별 비율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연령차와 부가적인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제주지역 대상자 수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서울에 편중된 표집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화 문제가 제기된다. 나라마다의 문화 차가 있듯 지역마다의 지역차가 존재할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차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나의식과 우리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나, 청소년의 자아의식 발달이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관적인 요인이므로 이에 따른 연구도 추후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일 (2000).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학위논문.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기춘 (1998). 아동의 교사기대지각에 따른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아청 (1996).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648-678.

서동효 (2001). 집단에 대한 애착 및 문화적 자기감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숙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자아개념과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나나 (2000). 부모-자녀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여운정 (2000).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명숙 (1989).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누야마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연구. 한국사회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이수원 (1996). 올바른 부모역할, 올바른 자녀역할: 비교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연구, 14, 1-24.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이숙, 우희정, 김미란 (2000).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3(1), 64-72.
- 이현 (1999).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 (200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숙, 김영희, 박경옥, 이희숙, 채정현, 이종섭 (1999). 청소년의 성별로 본 사회화와 생활환경. *대한가정학회지*, 37(9), 103-127.
- 조궁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모형의 확대-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 조궁호 (1995). 문화와 인지: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5(1), 104-139.
- 조궁호 (1997a).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적 함의.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동양 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41-106.
- 조궁호 (1997b).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 6(2), 1-43.
- 조궁호 (1999). 선진유학사상에서 도출되는 심리학의 문제. 최상진 외 편저. *동양심리학*. 서울: 지식산업사.
- 조궁호 (2001). 이상적 인간형의 동·서 비교. *인간이해*, 22, 1-15,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연구소.
- 조윤경 (2002).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상진, 최수향 (1990).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자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 최상진 (1992).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자기(self). *중앙대학교 인문과학논문집*, 35, 203-224.
- 최상진 (1993a).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자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 최상진 (1993b).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93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29-244.
- 최상진 (1996).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1999). 문화와 심리학: 그 당위성, 이론적 배경, 과제 및 전망.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엄*.
- 최상진 (2003).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10(1), 1-19.
- 한규석 (1996). 한국적 심리학의 모색: 집단주의-개인주의. *사회과학논평*, 14, 63-91.
- 한규석 (1999).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엄: 문화와 심리학*. 8월20일, 연세대학교, 103-127.
- 한덕웅 (2003). *한국유학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현상운 (2003). 사춘기 청소년의 불안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경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화 (2000). 자아개념과 학교적응 및 스트레스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Gillbert & S. Fiske(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pp. 680-740).

- Boston: Mc Graw-Hill.
- Caslyn, R. J., & Kenny, D. A. (1997). Self-concept of ability and perceived evaluation of others: Cause of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136-145.
- Choi, S. C. (1991). *Cheong: The Socio-emotional grammar of Koreans*.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Series,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Hawaii, January.
- Cohn, L. D. (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52-266.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Feldman, & G.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352-387).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rverly Hills, CA: Sage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130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dmore, C. D., & Loevinger, J. (1979). Ego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1-20.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J.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 Steinberg, D. I. (1982).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A review article. *Journal of Asian studies*. 42(1), 90-104.
- Sulivan, H. S. (1953).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riandis, H. C. (1989).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269-289.

1차 원고접수 : 2005. 3. 30.

수정 원고접수 : 2005. 5. 31.

최종 게재 결정 : 2005. 6. 4.

The Influence of Korean Parenting Behavior on the Adolescents' I-consciousness and We-consciousness

Su-Youn 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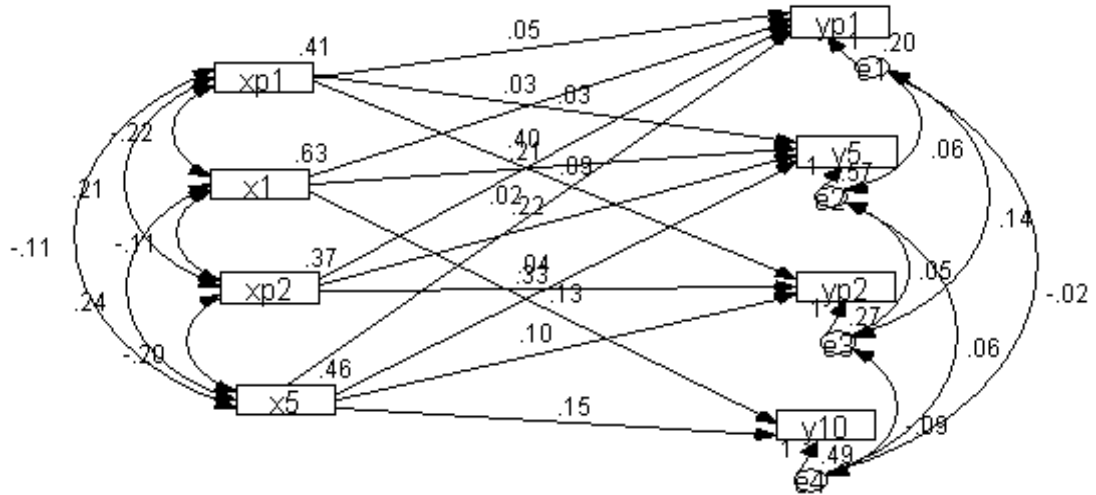
Ock-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their I-consciousness and We-consciousn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4 adolescents in a middle school and 2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Jeju. The Korean Parenting Behavior scale was developed by Lim(2003), and the I-consciousness and We-consciousness scale developed by Cho(2002) were used to assess adolescents' self development.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wo way ANOVA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consciousness and We-consciousness in terms of adolescents' grade and gender. The lesson factor of paternal parenting and the attention factor of maternal parenting perceived by adolescents explained positive I-consciousness and We-consciousness development. 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aternal parenting perceived by adolescents explained more I-consciousness and We-consciousness in self-concept development than paternal parenting did.

Key words : Korean parenting behavior, I-consciousness, We-consciousness

부 록
AMOS를 활용한 중다회귀 분석



Chi-square = 4.827

RMSEA = .038 (기준 .05~.08 이하)

f = 3

GFI = .997 (기준 .9 이상)

P-level = .185

AGFI = .966 (기준 .9 이상)

1. 독립변인의 명칭

X1-부의 부정적요인

X5-모의 부정적 요인

XP1-부의 긍정적 요인

XP2-모의 긍정적 요인

2. 종속변인의 명칭

Y5-나의식의 부정적 요인

Y10-우리의식의 부정적 요인

YP2-우리의식의 긍정적 요인

YP1-나의식의 긍정적 요인